

# 익산시, '아프면 쉬세요'

## 전북 유일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 2단계 시범사업 선정

익산시가 전북 유일하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1단계를 시작 25년 전국 확산 계획으로 지난 4일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익산시와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상병수당 지정은 복지부의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상병수당 지급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의료일수

모형에 선정되어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2800원이다. 정현을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하여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익산지역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난해 티켓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을 기록한 '교도소가 살아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 '2023 교도소가 살아있다'

### 익산문화관광재단, 교도소세트장 활용 야외 방탈출 게임 운영

지난해 티켓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을 기록한 '교도소가 살아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국내 최초로 교도소 세트장에서 실감 나게 진행되는 야외 방탈출 게임 '교도소가 살아있다'가 오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금요일 및 주말과 연휴를 포함해 총 5일간 개최된다. '교도소가 살아있다'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주최하고 문화예술공작소, 극단 자루, 지역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교도소세트장을 활용한 야외 방탈출 게임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연극과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방탈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대중성을 극대화하였다. 참여자가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하며 캐릭터(배우)와 상호작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험형 방식으로 작년

과 다르게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번외편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교도소세트장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자가 공간에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치밀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를 통해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연출은 프로그램에 묘미를 더해준다. 재단은 방탈출 게임인 만큼 안전 관 계상 화재 당 참가 인원을 제한하며 전면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달 28일부터 30일과 5월 4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하루 2회차(15:00, 18:00)씩 총 10회차를 운영한다. 예약은 오는 7일 오후 2시 티켓 11번 가를 통해 개시된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관광지원개발팀(063-918-9988)이나 문화예술공작소, 극단 자루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새만금 관할권 사수... 시민과 머리 맞대

### 관할구역 대응 민·관·정 TF 회의 개최

군산시는 5일 새만금 관할구역 사수를 위해 군산시민회 및 군산새만금지킵이 범시민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총력대응을 위한 민·관·정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김제시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마땅히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할 동서도로 및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해 민(군산새만금지킵

이 범시민위원회)-관(군산시)-정(군산시민회)이 합심해 머리를 맞대고 관할구역 결정 대응을 위한 대외 활동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단계별 역할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앞서 지난 3월 9일 군산시민을 대표해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아심치게 출범한 군산새만금지킵이 범시민위원회의 이승우 위원장과 최연성 사무총장 및 6개 분야 분과위

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시에서는 김미정 부시장과 경제행정혁신국장 및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시의회에서는 김우민 부의장 및 서동완·김경구·이한세 시의원이 참석해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을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정 각 분야에서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대시민 홍보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과 향후 기관별 대외활동 협의 등을 통해 새만금 관할권 결정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정 부시장은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만·관·정-정이 머리를 맞대고 한뜻으로 합심한다면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이 마땅히 군산시로 귀속될 것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군산시민회 및 범시민위원회 역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도시인 익산시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에 나선다. 특히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탈과 함께 단계별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과 농가를 연계한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그린바이오 핵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과 지역 농산업 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 핵심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 결과 미래 농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 소재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개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기업유

치 활성화 및 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 위한 단계별 혁신 인프라 조성 △산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농업 및 그린바이오 소재 기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활성화,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그린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앵커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

군산시가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지원한다. 시는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5월부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예약이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예약이물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 인증품에 한하며 한우·유정란·돼지고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공급한다. 지원조건은 임신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지원하며, 이중 20%인 9만6천원은 자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